

지역 서포터즈 영웅

지수로 살펴보는
서울 시민의 삶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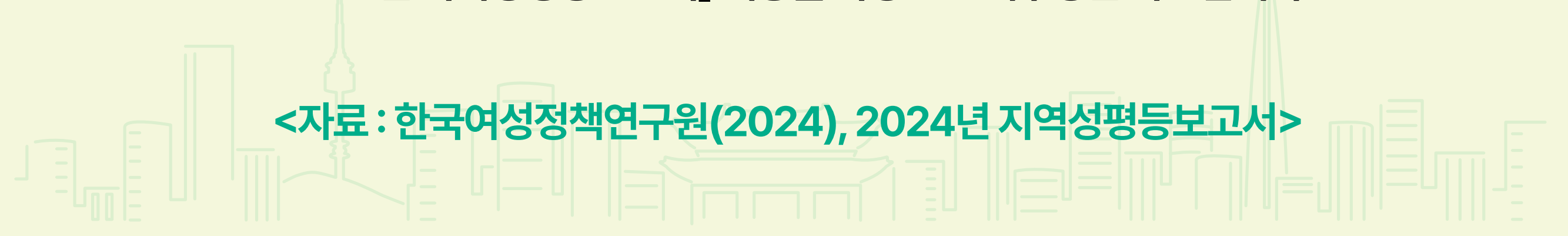
지역성평등지수

가 무엇인가요?

지역성평등지수는 시도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2011년 개발된 지수로 여성가족부는 매년 지역성평등지수를 발표합니다.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지역성평등지수를 통해
서울시의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역성평등지수로 살펴보는 서울 시민의 삶> 카드뉴스 시리즈는
「2024년 지역성평등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자료입니다.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4), 2024년 지역성평등보고서>



지역성평등지수의 영역별 지표구성

지역성평등지수는 3개 정책영역, 7개 분야, 20개 지표로 구성되며
안전영역을 가점영역으로 설정하여 지역 안전과 관련된 성평등을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표	영역	지표
동등한 권한	인사 결정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초중고 교장·교감 비율
자원의 동등한 접근	고용	고용률, 상용근로자 비율, 경력단절 여성 비율
	소득	임금 격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국민연금 수급률
	교육	평균 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기대수명, 스트레스 인지율
평등한 관계	돌봄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 사용
	양성평등 의식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성차별 경험률, 가족내 성역할 고정관념
안전 (가점)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야간통행의 안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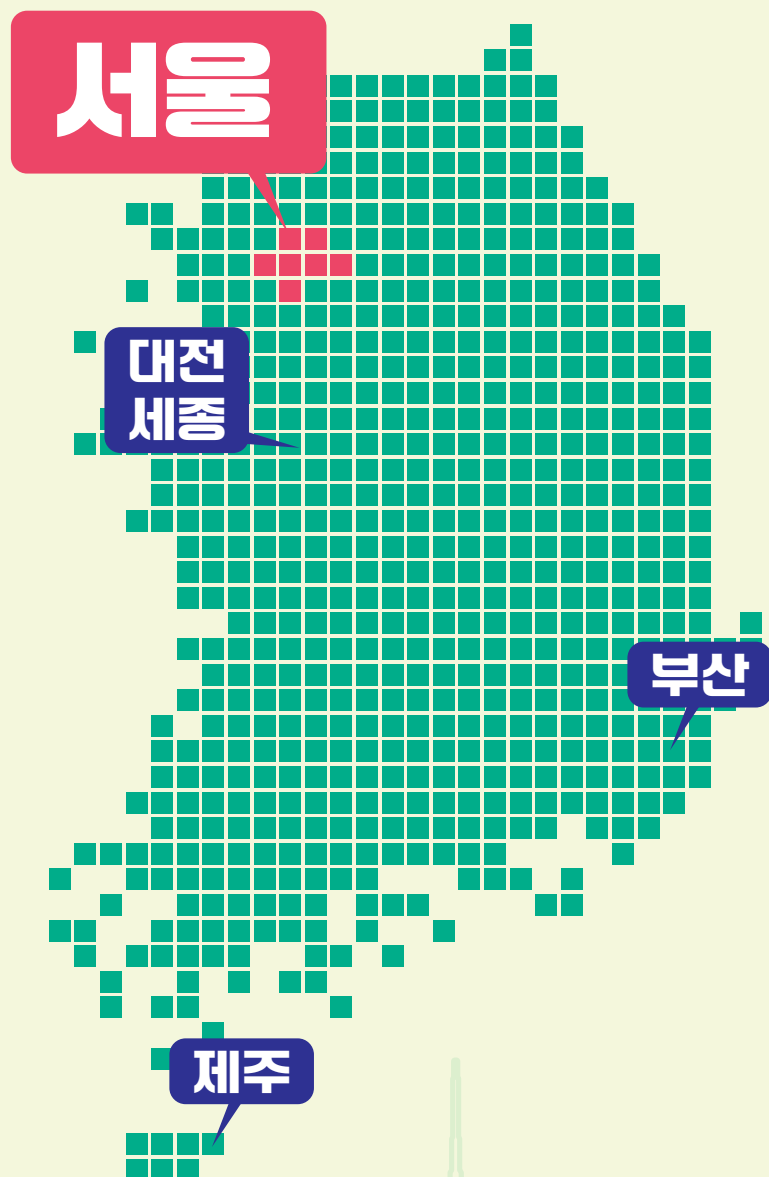


시도별 성평등수준(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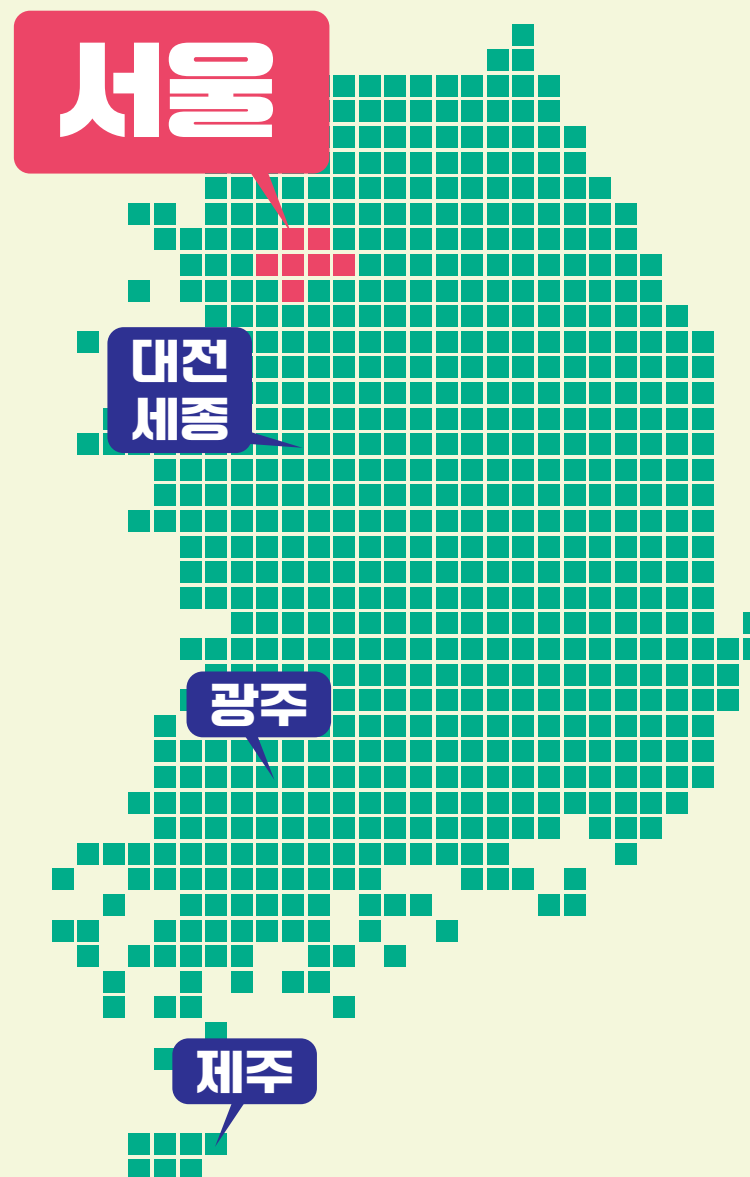
2023년 기준, **성평등 수준 상위지역**은 대전, **서울**, 세종, 제주, 충남입니다.
대전, 서울, 세종, 제주는 **2021년 이래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성평등수준 상위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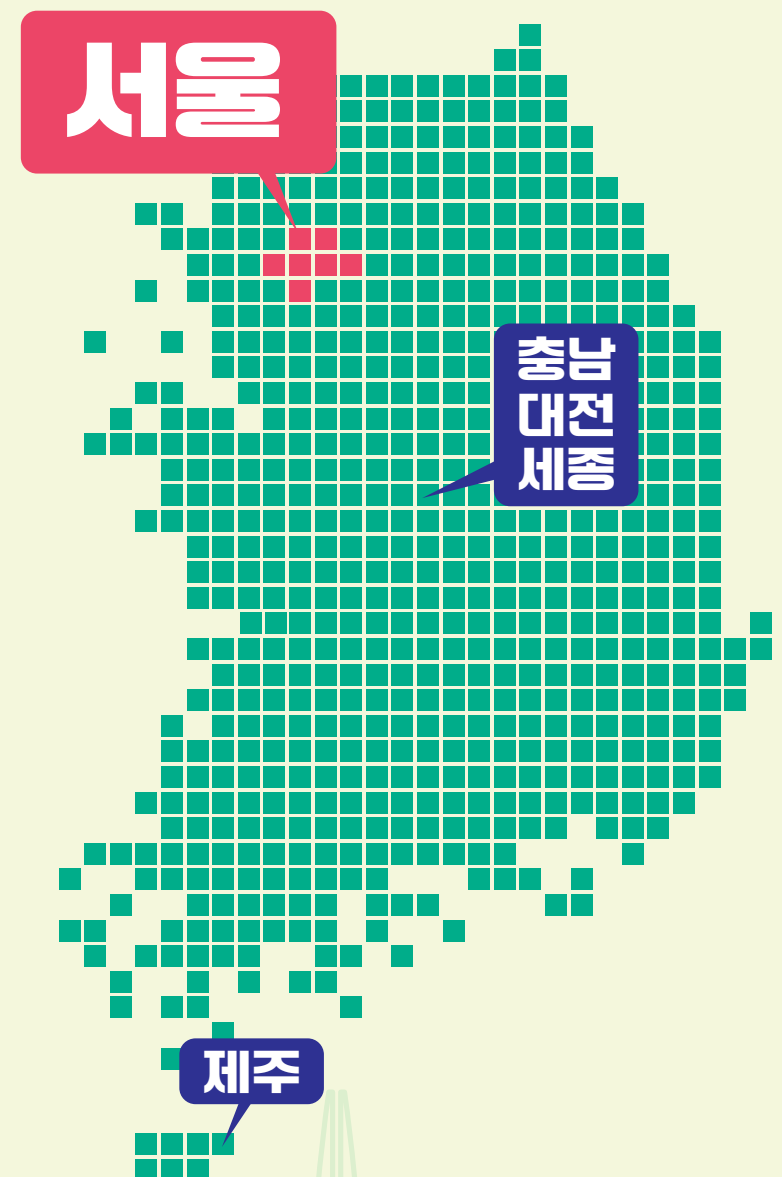
2021



2022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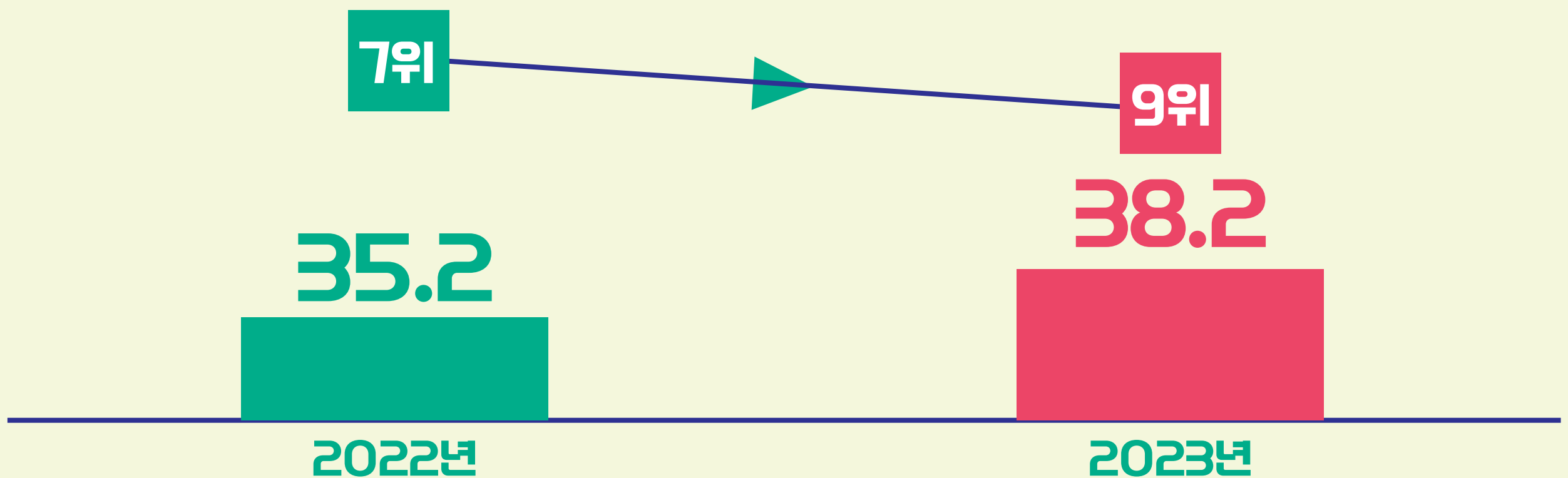


시도별 성평등수준(종합)

등급	2021	2022	2023
 성평등 상위지역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제주	광주 대전 서울 세종 제주	대전 서울 세종 제주 충남
 성평등 중상위지역	경기 광주 울산 전북	경기 대구 부산 충남	강원 광주 대구 전북
 성평등 중하위지역	강원 경남 대구 충남	강원 울산 인천 전북	경기 경남 인천 충북
 성평등 하위지역	경북 인천 전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충북	경남 부산 울산 전남

<의사결정> 영역의 성평등 수준 비교

의사결정 영역은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초중고 교장·교감 비율"로 성평등 수준을 측정합니다.
서울의 의사결정 영역 성평등 수준은 전국 9위로 2022년 대비 2단계 하락했지만,
광역 및 기초의원과 관리자 비율 지표의 순위는 **상승**했습니다.



	2022		2023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의사결정 영역	35.2	7	38.2	9
광역및기초의원	49.2	5	53.1	4
5급이상공무원	43.2	6	47.8	9
관리자비율	19.3	10	23.5	8
초중고교장·교감비율	29.3	13	28.5	14

해석

모든 지표는 완전 불평등을 의미하는 '0.0점'부터 완전 평등을 의미하는 '100.0점'의 값을 가지며, 점수가 높다는 것은 성평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고용> 영역의 성평등 수준 비교

고용 영역은 "고용률", "상용근로자 비율", "경력단절 여성 비율"로 성평등 수준을 측정합니다. 서울의 고용 영역 성평등 수준은 2022년과 동일한 전국 3위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비율** 지표 순위는 6위에서 4위로 **2단계 상승**했고, **상용근로자 비율** 지표 순위는 한 단계 상승하여 **전국 1위**입니다.

3위

84.7

2022년

3위

85.6

2023년

	2022		2023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고용 영역	84.7	3	85.6	3
고용률	81.4	5	82.2	5
상용근로자비율	88.7	2	88.2	1
경력단절 여성비율	83.9	6	86.4	4

해석

모든 지표는 완전 불평등을 의미하는 '0.0점'부터 완전 평등을 의미하는 '100.0점'의 값을 가지며, 점수가 높다는 것은 성평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소득> 영역의 성평등 수준 비교

소득 영역은 "성별 임금격차",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국민연금 수급률"로
성평등 수준을 측정합니다. 서울의 소득 영역 성평등 수준은
2022년과 동일한 전국 3위입니다. **성별 임금격차** 지표의 순위는
전년 대비 **한단계 상승**하였습니다.

3위

76.5

2022년

3위

77.0

2023년

	2022		2023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소득 영역	76.5	3	77.0	3
성별 임금격차	66.7	5	66.4	4
기초생활수급자비율	94.0	1	93.7	2
국민연금 수급률	68.8	4	70.8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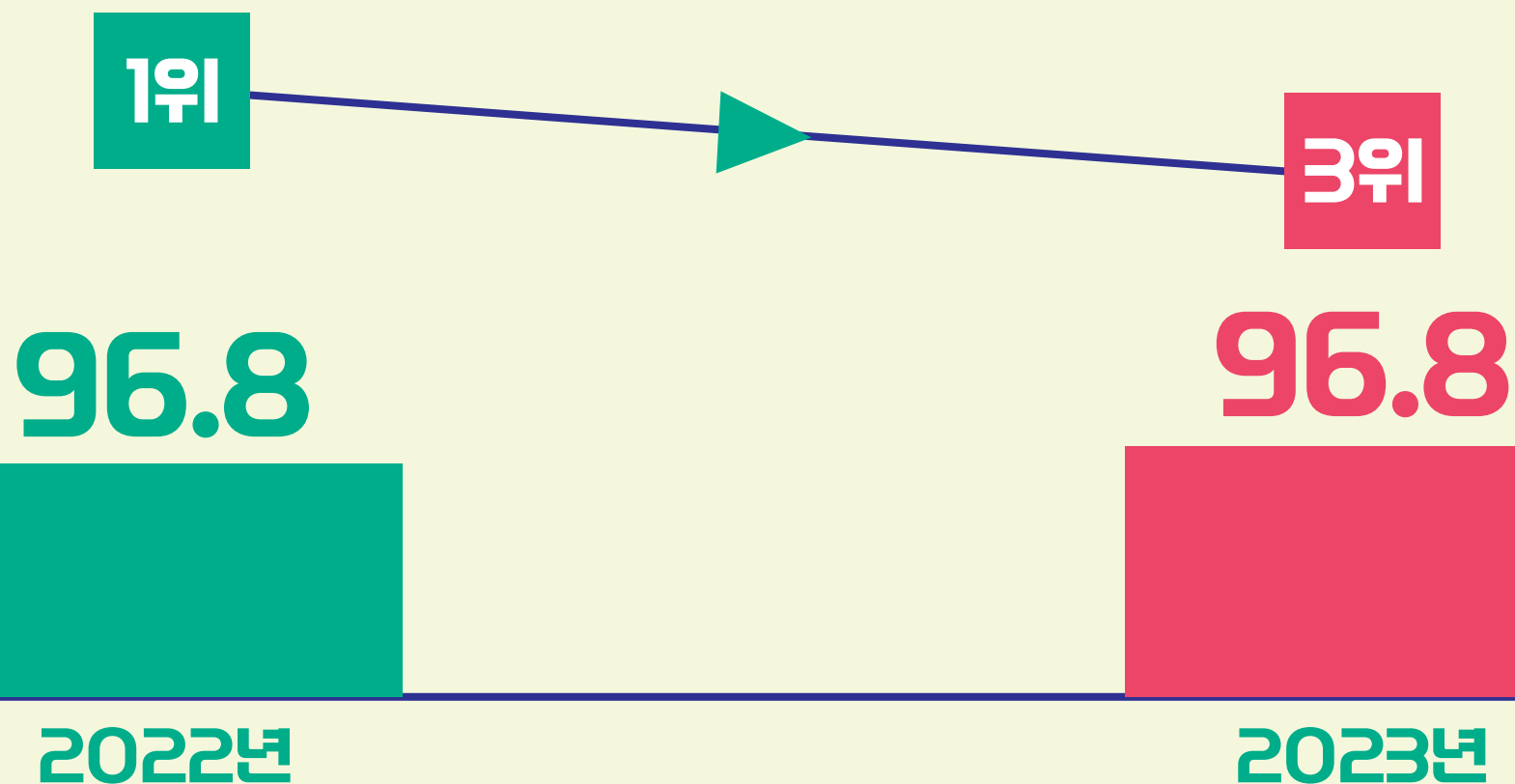
해석

모든 지표는 완전 불평등을 의미하는
'0.0점'부터 완전 평등을 의미하는
'100.0점'의 값을 가지며,
점수가 높다는 것은
성평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교육> 영역의 성평등 수준 비교

교육 영역은 "평균 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로 성평등 수준을 측정합니다.
서울의 교육 영역 성평등 수준은 2022년 전국 1위에서 전국 3위로 전년 대비 2단계 하락했지만,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지표 순위는 **전국 1위(100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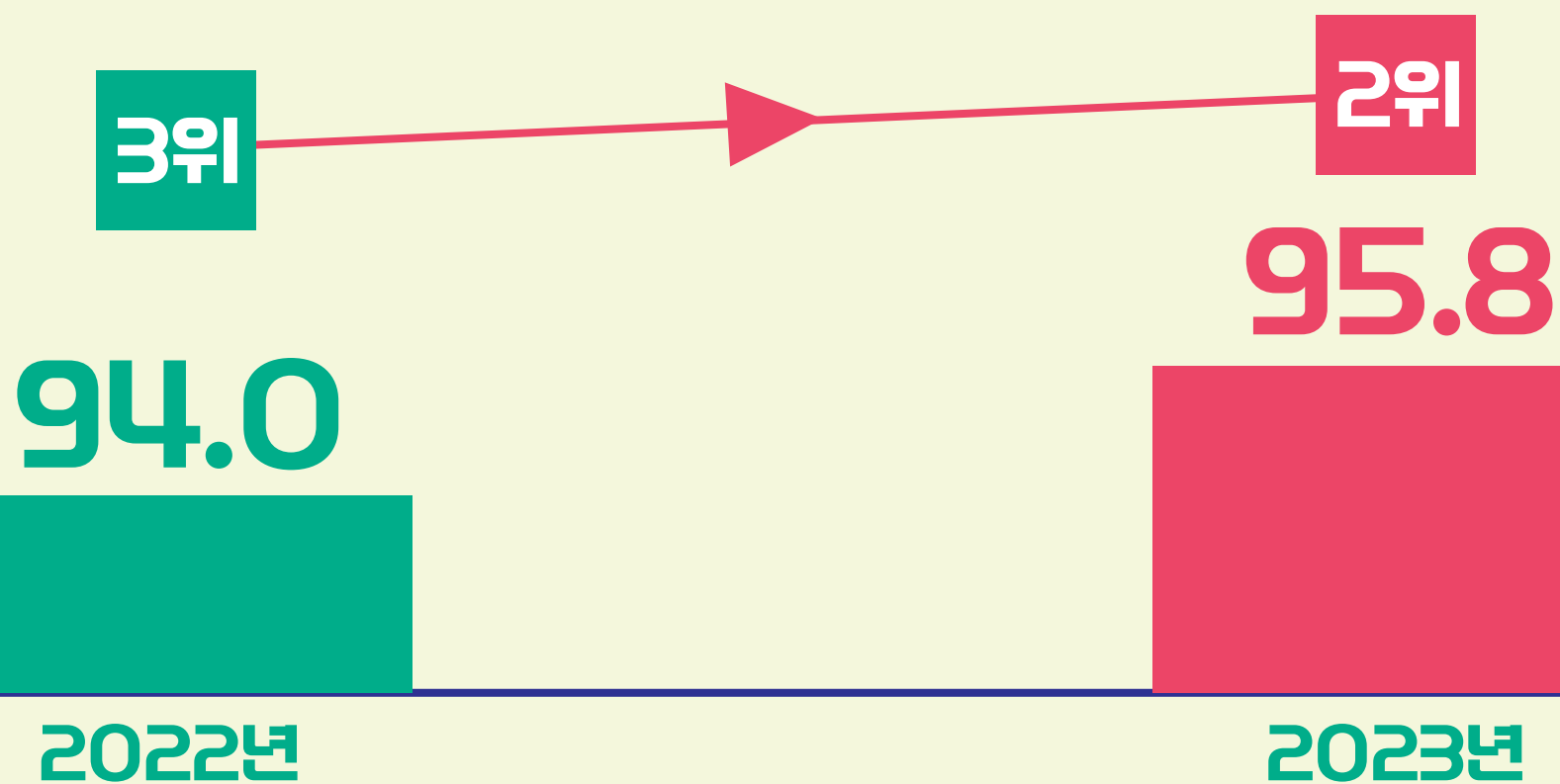
	2022		2023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교육 영역	96.8	1	96.8	3
평균 교육년수	93.6	1	93.5	3
고등교육기관진학률	100.0	1	100.0	1

해석

모든 지표는 완전 불평등을 의미하는 '0.0점'부터 완전 평등을 의미하는 '100.0점'의 값을 가지며, 점수가 높다는 것은 성평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건강> 영역의 성평등 수준 비교

건강 영역은 "주관적 건강상태", "기대수명", "스트레스 인지율"로
성평등 수준을 측정합니다. 서울의 건강 영역 성평등 수준은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하여 전국 2위이며,
주관적 건강상태와 기대수명 지표의 순위는 **전국 1위**입니다.



	2022		2023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건강 영역	94.0	3	95.8	2
주관적 건강상태	85.4	2	90.6	1
기대수명	100.0	1	100.0	1
스트레스 인지율	96.8	10	96.8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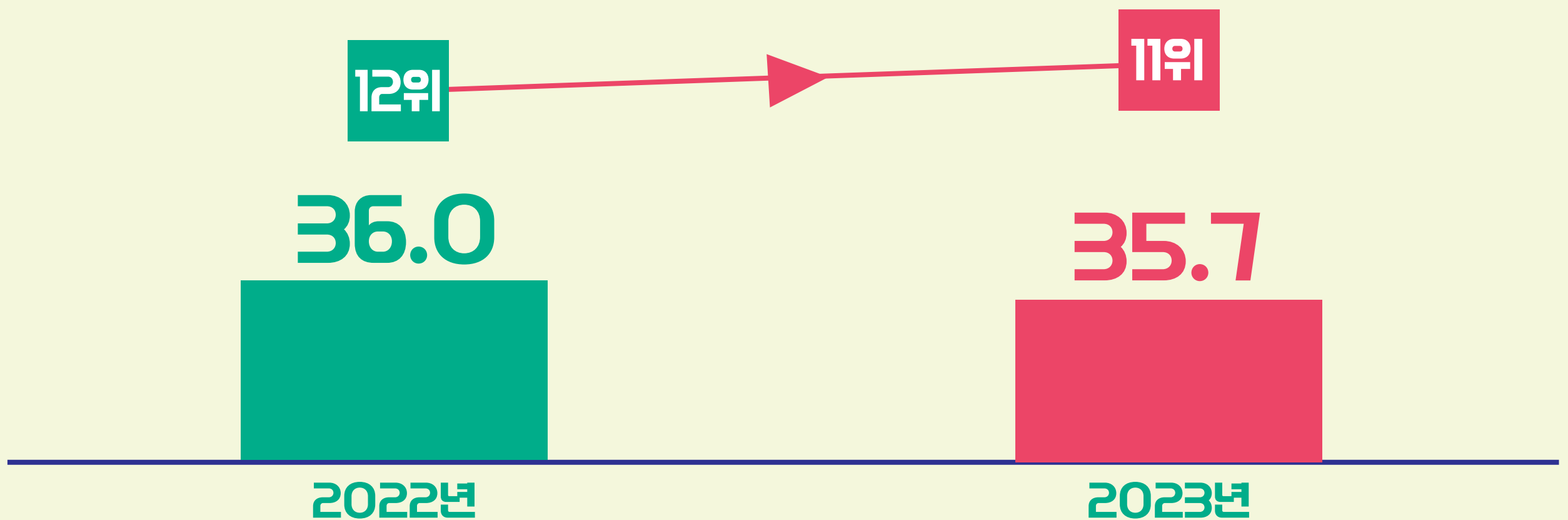
해석

모든 지표는 완전 불평등을 의미하는
'0.0점'부터 완전 평등을 의미하는
'100.0점'의 값을 가지며,
점수가 높다는 것은
성평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돌봄> 영역의 성평등 수준 비교

돌봄 영역은 "가사노동 시간", "육아휴직 사용자"로 성평등 수준을 측정합니다.
서울의 돌봄 영역 성평등 수준은 전국 11위로 2022년 대비 1단계 상승했으며,
육아휴직 사용자 지표의 순위는 12위에서 11위로 **한단계 상승**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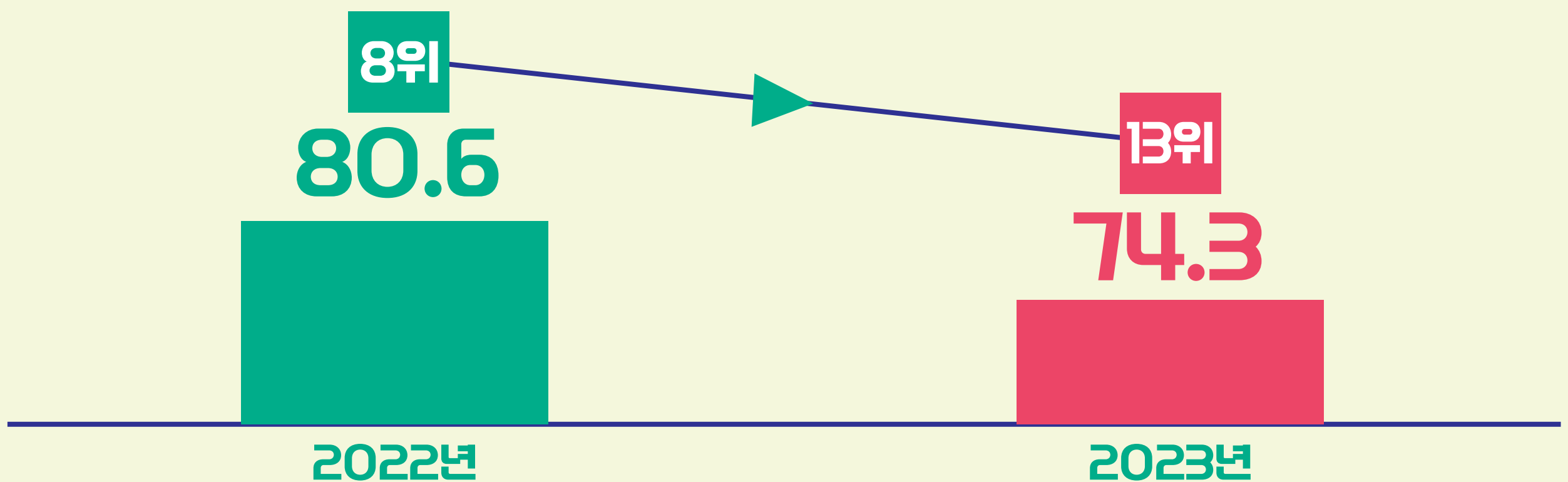
	2022		2023	
	점수	순위	점수	순위
돌봄 영역	36.0	12	35.7	11
가사노동시간	33.0	6	33.0	6
육아휴직사용자	39.1	12	38.4	11

해석

모든 지표는 완전 불평등을 의미하는 '0.0점'부터 완전 평등을 의미하는 '100.0점'의 값을 가지며, 점수가 높다는 것은 성평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양성평등의식> 영역의 성평등 수준 비교

양성평등의식 영역은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 인권에 대한 태도", "성차별경험률"로 성평등 수준을 측정합니다. 서울의 양성평등의식 영역 성평등 수준은 전국 13위로 전년 대비 하락했지만, **성차별 경험률** 지표의 순위는 14위에서 13위로 **한단계 상승**했습니다.



	2022		2023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양성평등의식 영역	80.6	8	74.3	13
성역할 고정관념	62.6	2	44.9	7
여성 인권에 대한 태도	85.2	9	85.1	10
성차별 경험률	94.0	14	92.8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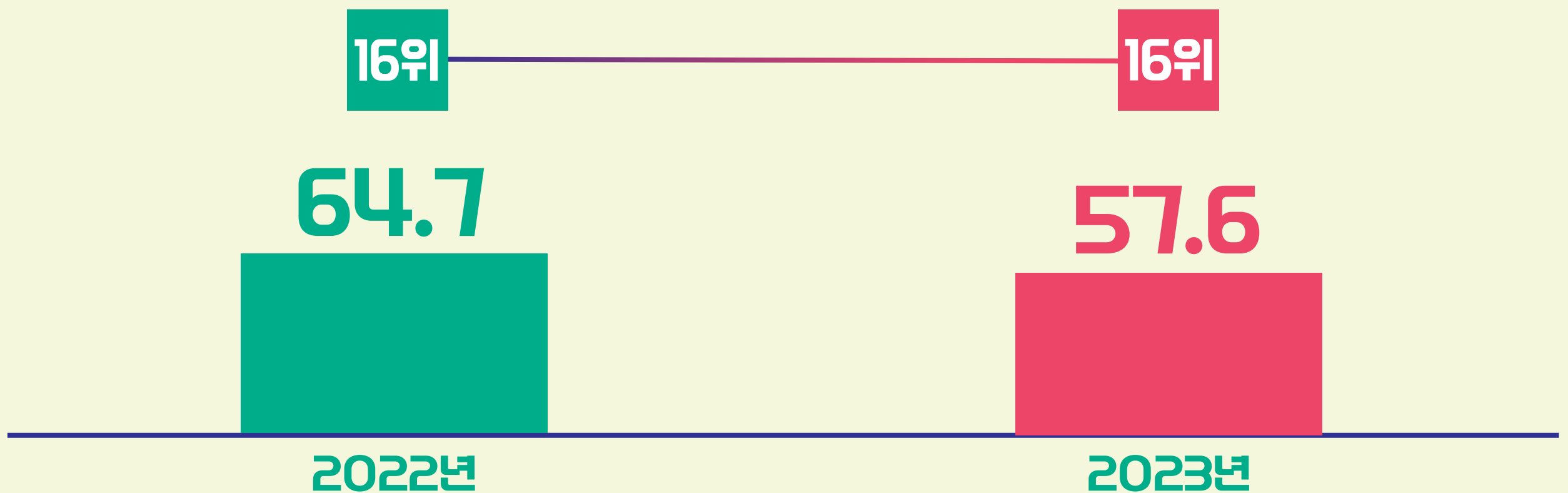
해석

모든 지표는 완전 불평등을 의미하는 '0.0점'부터 완전 평등을 의미하는 '100.0점'의 값을 가지며, 점수가 높다는 것은 성평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안전(가점)> 영역의 성평등 수준 비교

안전 영역은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과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로 성평등 수준을 측정합니다. 서울의 안전 영역 성평등 수준은 2022년과 동일한 전국 16위입니다.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지표의 순위는 한 단계 하락했지만, 야간보행 두려움 지표의 순위는 동일합니다.



	2022		2023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안전 영역	64.7	16	57.6	16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64.0	13	64.0	13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65.3	16	51.1	17

해석

모든 지표는 완전 불평등을 의미하는 '0.0점'부터 완전 평등을 의미하는 '100.0점'의 값을 가지며, 점수가 높다는 것은 성평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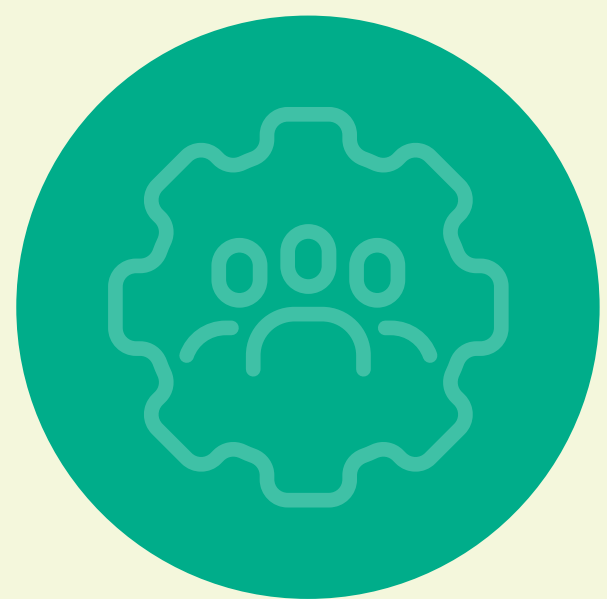
<지역성평등지수로 살펴보는 서울 시민의 삶> 다음 시리즈에서는 안전영역 관련 서울시 성평등 현황과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전



돌봄



일자리

카드뉴스를 인용할 때는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에 따라 사용해주세요.

출처표기
예시

본 저작물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시 양성평등 아카이브 (<http://moa.seoulwomen.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